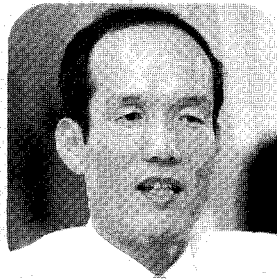


한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농업정책연구소장
이 언 목

필자는 4월 2일 진주산업대학교의 양돈과학기술센터가 주최하는 “FTA이후 양돈산업의 대응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주산업대학교는 90년대 초 필자가 농림부 축정과장으로 근무할 때 양돈교육과정에 축산정책을 설명하러 간 적이 있다. 큰 교실에 ‘학생’들이 빈자리 없이 뺨뺨이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과계 대학교수들까지 참여하여 회원농민들의 양돈장을 누비면서 현장지도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를 지기 대학은 저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졸업을 하고 나면 농업분야를 되돌아보지도 않는 학생들에게 탁상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다른 농과대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다. 필자는 양돈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범적인 산학협동을 하고 있는 교수와 양돈인들의 진지한 자세에 이끌려 이번 심포지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우리 양돈산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안

타깝고도 놀라운 사실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양돈산업전체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잘 안면서도 아직도 소독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소득을 게을리 하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남이 소독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농민이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돼지를 관계당국의 반출제한조치가 내리기 전에 다른 농장에 내다 판 농민도 있었다고 한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많은 노력 끝에 도입된 양돈자조금을 거두는데 일부 도축가공업자가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농민이 내겠다는 자조금조차 거두어 주는 것에 비협조적인 업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가축질병이 세계화되고”, 축산물시장이 세계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양돈농가와 관련 산업의 임직원, 관련 대학의 교수, 모두가 한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 쉽게 확산되고 피해도 막대한 양돈업과 관련 산업의 경우는 거친 바다위에 한배를 타고 있는 형국이다. 이웃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면

폐업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접어두고라도 생산 이후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나 혼자 잘한 것이 소용없게 된다. 수송 도중에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되고, 도축과정에서 오염이 되어도 안 된다. 다른 농가가 사육, 출하한 돼지고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내가 생산, 출하한 고기도 안 팔린다. 모든 양돈농가가 서로 얽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돈업이 위축되면 몇 사람 양돈농가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구제역으로 양돈업과 관련 산업이 초토화된 대만의 경우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돼지콜레라 때문에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지 못함에 따라 농가만 손해를 본 게 아니다. FTA협정의 체결, DDA협상의 타결 등으로 외국의 돼지고기가 밀려와 우리 양돈업이 위축되면 양돈농가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국내양돈업규모가 줄어들면 사료업자도 생산을 줄여야 할 테고, 도축가공업자도 할 일이 줄어들 테고, 수의사도 일이 줄어들 테고, 동물약품업자도 사업이 줄어들 테고, 돼지를 실어 나르던 운수업자도 일이 줄어들 테고, 양돈시설업자도 일이 줄어들 것이다. 축산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과 농민이 줄어들면 당연히 축산관련 대학과 학과도 줄어들어 대학교수 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분명 모두가 한배를 타고 있다. 배에 물이 차오르거나, 배가 침몰하면 다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각자의 발목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판매업자와 소비자도 양돈업과 관련 산업이 잘되고 못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매업자는 세계 어디서든 점점 더 쉽게 원하는 품질의 돼지고기를 사서 팔 수 있고, 소비자들은 사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양돈업과 관련 산업이 위축되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떨어지고, 이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만큼 돼지고기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도 위축된다. 가급적이면 국내산 돼지고기를 많이 팔고,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배에 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행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개인적이었고, 국가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한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행동을 하기도 무척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양돈농가대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등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 한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도 자조금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행동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자조금 조성액이 커질수록 보다 많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고, 공동운영체로서의 인식이 단단해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물론이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것이다.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집행의 투명성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업의 다른 분야도 양돈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한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농민과 농민 간의 경쟁도 아니고, 우리 농민과 외국 농민과의 경쟁도 아니다. 소비자 앞에 놓인 농업생산품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 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낸 “상품”이다. 이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승패가 갈린다. 필자가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덮쳐오는 거대한 세계화의 파고를 각자가 저어가는 작은 뚝단배로는 결코 넘을 수가 없다. **인농연**